

EP용 첨가제 시장전망 “밝다”

가정·자동차용 산화방지제·UV안정제·난연제 시장성 양호

Ciba Sepcialty Chemicals이 플라스틱첨가제 중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용 첨가제 시장의 장래성이 양호하다고 주장, 주목되고 있다.

Ciba에 따르면, 가정용 혹은 실외기구용 산화방지제, UV안정제, 난연제 같은 고부가가치제품들이 EP와 관련돼 수요시장이 예상되고 있다. 소비용, 자동차부품용 UV안정제 수요도 급신장하고 있다.

Ciba는 특허제품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Ciba가 개발한 주요기술에는 투명 Polyester 패키지용 UV안정제가 있다. 패키징된 식품은 매장의 직접적인 형광빛을 견딜 수 있도록 보호처리된다. Ciba는 산화방지제 및 광안정제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난연제 생산기업들은 PET/PBT, PS 시장에서 급격한 수요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컴퓨터 외장재, 카펫, 사무용기기 같은 소비재 수요증가 때문이다.

Albemarle에 따르면, 수요규모가 가장 큰 난연제인 TBBPA 수요가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요신장률이 연평균 6-7%로 수익 역시 양호하다.

Albemarle은 아리조나주 Magnolia에 신규공장을 건설해 1999년초 가동했다. TBBPA 생산능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생산능력은 2만5000톤이다.

한편, 플라스틱첨가제 생산기업들은 PVC용 납, 카드뮴 열안정제 대체를 위해 현재의 첨가제를 혼합 사용하고 있는데, Akcros는 PVC wire 및 케이블용 납 안정제 대체를 추진하고 있다.

대체제는 혼합제품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갈슘이나 아연같은 13-14개의 첨가물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2개의 첨가물을 담은 납 안정제와 다른 점이다.

Velsicol은 벤젠산을 기초로 한 PVC용 가소제를 생산하고 있는데, 신규 가소제에 대한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

신규 가소제는 PVC용 Phthalate계 첨가제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태 지역에 주로 판매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 01/ 29>